

# 漁父辭

屈原<sup>1)</sup>  
咸錫憲 解說

## 漁父<sup>2)</sup>辭<sup>3)</sup>

屈原既放<sup>4)</sup>, 游<sup>5)</sup>於江潭<sup>6)</sup>, 行吟<sup>7)</sup>澤畔, 顏色憔悴<sup>8)</sup>, 形容枯槁<sup>9)</sup>.

漁父見而問之曰, 子非三閭大夫<sup>10)</sup>與, 何故至於斯<sup>11)</sup>.

屈原曰, 舉世<sup>12)</sup>皆濁我獨清, 衆人皆醉我獨醒, 是以見放.

漁父曰, 聖人不凝滯<sup>13)</sup>於物, 而能與世推移<sup>14)</sup>, 世人皆濁, 何不淪<sup>15)</sup>其泥而揚<sup>16)</sup>其波,

- 1) 屈原=楚나라 懷王 때 사람. 왕족으로서 屈이라는 고을을 말아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姓을 삼게 됐다. 이름은 平, 原은 그 字다. 지식이 넓었고 정치에 밝았으며 마음이 곧고 글을 잘했다. 처음에 王의 신임을 얻어 안팎의 정사를 다 맡아했으나 王이 上官大夫의 술아먹는 말에 넘어가 原을 멀리함에 슬프고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 돌을 안고 汨羅水에 빠져 죽었다. 이 글은 자기의 그 심경을 그린 것이다.
- 2) 漁父=漁는 고기 잡이, 父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쓴다. 이 세상 富貴 功名에 뜻이 없고 道를 닦아 숨어 사는 隱者, 巢父 許由 같은 사람들.  
屈原이 여기 漁父를 끌어낸 것은 아마 실지 그런 隱者와 문답을 했다기보다는 자기 心中을 밝히기 위해 그렇게 말을 만들어 한 것일 것이다.
- 3) 辭=글 쓰는 체의 한 가지. 賦, 解, 說, 序, 記……여러 가지가 있는 그중의 하나, 上古에 詩가 있었고 그것이 변해 騷가 됐고, 騷 다음에 辭가 나왔다. 간략하고도 깊이가 있는 체라고 한다.
- 4) 放=내쫓음. 여기는 被動으로 내쫓음을 받았다는 뜻.
- 5) 游=마음 아파서 헤매어 왔다갔다 함.
- 6) 江潭=글자 대로는 강, 못, 그러나 여기 강담은 地名이라고 한다. 王의 눈밖에 난 다음 原은 江洲 屈漂에 있었다.
- 7) 行吟=가며 가며 읊조려 흥얼거림.
- 8) 憔悴=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없고 썩썩해진다. 타마름.
- 9) 枯槁=마른 나무처럼 시들어 活氣가 없다. 모든 일에 뜻이 없어진 증거.
- 10) 三閭大夫=屈原이 하던 벼슬 이름. 閭는 동리 들어가는 어구의 문. 그것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지위가 표시된다.
- 11) 斯=여기 이곳에
- 12) 舉世=온 세상. 온 “나라가” 할 때는 舉國, “온 민족이” 할 때는 舉族的으로.
- 13) 凝滯=凝은 물이 얼듯 엉켜 버리는 것 滯는 걸리는 것. 먹은 것이 체했다는 때의 체. 사람의 생각 행동은 물처럼 流通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엇이 걸리고 막혀버리면 안된다. 분한 일이 있어도 분을 낸 다음에 슬쩍 이기고 넘어가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온통 거기 잡혀버려 平安을 잃는다. 마음이 平安치 못하면 事物을 바로 보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가 없다.
- 14) 推移= 옮겨 감. 환경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잘 적응해 감.
- 15) 淪=진창을 두루 밟아 물을 흐림.
- 16) 揚=물결을 쳐 일으킴.

衆人皆醉，何不鋪其糟<sup>17)</sup>而歎其醜<sup>18)</sup>，何故深思<sup>19)</sup>高舉<sup>20)</sup>，自令<sup>21)</sup>放爲。

屈原曰，吾聞之，新沐者必彈冠<sup>22)</sup>，新浴者必振衣<sup>23)</sup>，安能以身之察察<sup>24)</sup>受物<sup>25)</sup>之汶汶<sup>26)</sup>者乎，寧赴湘流<sup>27)</sup>，葬於江魚之腹中，又安能以皓皓之白，而蒙<sup>28)</sup>世俗<sup>29)</sup>之塵埃<sup>30)</sup>者乎。

漁父莞爾<sup>31)</sup>而笑，鼓枻<sup>32)</sup>而去，乃歌曰，滄浪<sup>33)</sup>之水清兮，可以濯乎纓<sup>34)</sup>，滄浪之水濁兮，可以濯乎足，遂去不復與言。

### 고기잡이 늙은이 노래

굴원이 이미 내침을 받음에 강담에 놀아 못가에 걸으며 읊조리니 낮빛이 바짝 마르고 모양이 마른 나무처럼 시들었더라.

고기잡이 늙은이 보고 묻기를, 그대 삼려대부 아닌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 이르렀는가.

굴원이 가로되, 온 세상이 다 흐렸는데 나 홀로 맑았고, 못사람이 다 취했는데 나 홀로 깨었노라, 이리므로 내침을 보았노라.

17) 糟=술을 거르고 난 찌꺼기

18) 醜=꽃 술을 걸러내고 찌꺼기 속에 아직도 좀 남은 연한 술, 나름물

19) 深思=나라 일을 위해 곰곰 생각함.

20) 高舉=특별히 남다르게 높이 자기 지조를 지킴.

21) 自令=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

22) 彈冠=머리를 감고 나면 깨끗한 기분에 자연히 먼지 낀 감투를 그냥 쓰고 싶지 않아 손가락으로 툭툭 튕겨서 쓴다.

23) 振衣=옷을 활활 털어 그 속에 낀 먼지를 버림.

24) 察察=察은 무엇을 자세히 살핌. 거기서 깨끗이 라는 뜻이 나온다. 水至清則無魚 人至察則無徒,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 없고, 사람이 너무 깔끔히 굴면 벗이 없다 하는 때의 察도 같은 뜻.

25) 受物=사람은 자유해야 한다. 物은 나의 밖에서 오는 모든 것.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는 마음의 자유가 없다.

26) 汶汶=더러운 것이 묻은 것. 얼룩이 간 것.

27) 湘流=瀟湘江.洞庭湖로 들어가는 강이름. 경치가 좋아 中國 문학에 많이 나오나 특히 舜의 王后 娥皇, 女英의 전설로 유명하다. 舜이 죽은 후에 그 슬픔을琵琶에 부쳐 노래하고 瀟湘에 빠져 죽었다. 그 피 눈물을 대밭에 뿌려 아롱아롱한 斑竹이 됐다고 하고 흔히 水神이 됐다 해서 湘君이라 湘妃라 한다. 春香傳에 나온 것도 그 높은 志操 때문이다. 湘流를 혹은 常流라 써서 長流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屈原의 心境으로 미루어 보아 瀟湘江일 것이다.

28) 蒙=머리에 튀어 씌. 풀이 흠을 들치고 나오는 것을 표시한 것. 그래서 어리다는 뜻도 되고 머리에 쓴다는 뜻도 있다.

29) 世俗=더러운 세상

30) 塵埃=티끌. 그 더러운 세상 사람의 마음을 말한 것.

31) 莞爾=빙긋이 웃는 형용

32) 鼓枻=枻는 뱃대, 혹은 노, 鼓枻는 뱃삼을 툭툭 치며 노래를 부른단 말.

33) 滄浪=漢水의 下流. 두 물이 합류하기 때문에 滄浪이란다고 했고 거기 섬이 생겨서 滄浪洲라 부르는데, 거기 漁父亭이 있고 또 屈原이 갓끈을 씻었다는 濯纓臺도 있다.

34) 纓=갓의 끈

고기잡이 늙은이 가로되, 어진이는 무엇에나 영기고 걸림이 없어 세상으로 더부러 잘 어울려 옮겨가는 것이다. 온 세상이 다 흐렸거든 어찌하여 그 진흙을 휘저으며 그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고. 문사람이 다 취했거든 어찌하여 그 찌꺼기를 먹으며 그 나뭇물을 마시지 않는고. 그리고는 깊이 생각하고 높이 서서 스스로 내침을 받도록 하는고.

굴원이 가로되, 나는 들으니 새로 머리감은 이는 반드시 감투를 튕겨서 쓰고 새로 몸 씻은 이는 반드시 옷을 떨어져 입는다 하니, 어찌 내 몸의 깨끗함을 가지고 남의 얼룩덜룩 한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소상강에 나가 고기 뱃속에 장사를 지낼지언정 또 어찌 참아 희고도 흰 맑음을 가지고 더러운 세상의 티끌을 무릅쓸 수 있겠는가.

고기잡이 늙은이 빙긋이 웃고 뱃삼을 쳐 떠나가면서 노래하기를, 창랑물 맑거들랑 내 갓끈을 씻음세나, 창랑물 흐리거들랑 내 발을 씻음세나,

드디어 가 버린 다음 서로 다시 말이 없더라.

짙막한 글이지만 그 안에 곧고 깨끗한 忠誠을 다해서 나라를 생각하던 屈原이 어떻게 해서 스스로 죽기를 결심하기에 이르는지 그 心境의 과정이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고는 말지 않을 정도로 잘 그려져 나타나 있다. 진정에서 나온 글이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潔白을 주장한다.

맨 처음은 형편없이 참혹해진 자기 모양의 의식이다. 여기서 그 슬픔이 절정에 오른다. 아픈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강가를 헤매 오르내리며 입속에 흥얼거리 싸다니다가 피곤에 지쳐 언덕에 주저앉아 물속에 비치는 자기 꼴을 보니, “아 내 꼬락서니가 이렇게 됐구나,” 할 지경으로 달라졌다.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한 생각일 것이다. 顏色憔悴形容枯槁라고 했다. 바짝 마르고 시들어 빛이 없다.

그것은 나라와 임금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어떻게 지극하고 그 생각 속에 어떻게 욕심과 그릇된 판단이 없었던 것을 말해주는 일이다. 사랑이 지극하지 않았던들, 그리고 그 사랑에 무슨 지저분한 목적이라도 끼었던들, 그 사랑을 바쳤던 마음이 변해 자기를 몰라보아 줄 때,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이 없는 거짓말로 자기를 쓸은 것인데 그이가 어찌 그것을 모른단 말인가. 역울할수록 아픔은 더 크다.

그러나 그러는 마음에도 모든 시비 칭찬 욕을 초월해 살아야 한다는 이론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 스스로 그러한 숨어 사는 성자가 되어 자기에게 물어본다. 내가 나라에서 둘째도 아니게 임금의 신임을 받았던 三閭大夫 아닌가. 그 내가 이런 사람도 없는 강가를 왜 와서 헤매지, 하고 다시 한번 냉정한 객관적인 태도로 묻는다. 그것이 둘째 단이다.

셋째 단은 자기 불행의 원인을 분명히 말해서 자기의 깨끗함을 밝히는 말이다. 擧자와 獨자가 강하게 대립이 된다. 온 세상이 다 흐렸고 모든 사람이 다 취했다. 스스로 돌아보아 자기의 터럭 끝만큼도 더러운 것 없음을 말한다. 온 세상과 자기 하나의 수로는 비길 수 없는 차이지만, 자기는 결코 비겁하게 부귀나 안전을 위해 타협을 하거나 모른척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악에 굴복할 마음은 없다.

이러므로 내침을 받았다 하는데 온 세상의 잘못에 대한 반격이 있다. 불행하지만

그 불행의 책임은 내게 있지 않다. 저 어리석은 세상에 있다. 임금이 어두워서 당하는 억울인데 거기 온 세상을 끌어낸 것은 전제군주시대이기는 하기마는 세상이 정말 옳은 세상이요 똑똑한 눈을 가진 사람이 몇이라도 있다면 그래 그 더럽고 악독한 일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있던 말이냐 하는 생각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그 다음은 거기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말이다.

我獨淸이란 말이 스스로 너무 모가 난 말이다. 세상이 아무리 흐렸더라도 세상을 내버리고 어딜 가느냐, 세상을 전적으로 부인하고는 나도 없지 않느냐, 그 잘못된 것을 알아 거기 물이 들지 않으면서도 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진이의 일 아니냐 하고 지금까지의 자기 태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한번 隱者의 길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흐리면서도 흐리지 않는 것이 강물이듯이, 취하면서도 취하지 않는 것이 정말 세상을 건져 가는 성자의 일 아니냐 하고 생각해 본다.

집착을 해서는 못쓰지 않느냐. 물이 모 든 것을 옮겨 바다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얼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천지만물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道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느 무엇에 걸려버리면 어찌 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내 뜻을 고집함 없이 슬쩍 받아 돌리는 데서야 크신 하늘 뜻을 성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나라를 나 혼자서 하는 듯이 생각하고 나만을 너무 옳다 해서 구별하는 것이 잘못 아니냐, 그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패망을 가져올 뿐 아니냐고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지 않지만 屈原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못이 없는 자기의 일을 가지고 아무 밝힘도 없이 멍청하고 있으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시인해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 같아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들으니 하고 다시 자기 본래 태도로 돌아온다. 그것이 다섯째 단이다. 나는 들으니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결코 자기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객관적인 권위가 선다는 뜻이다.

이론보다도 생명의 근본 바탕이 그렇지 않느냐, 必자는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놓았다. 누구만이 아니라 사람인 담에는 다 생각을 해가지고가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한단 말이다. 그 근본을 우리 천성에 구한 것이다. 새로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모자를 떨어서 스고 옷을 흔들어서 입는다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근본이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차라리 죽더라도 깨끗한 편을 지키겠다, 하고 결심을 새로이 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지막 단에 고기잡이 늪은이가 빙긋이 웃었다는 것은 屈原이 이성과 감정을 다해 생각할대로 하고 반성할대로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얻은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뱃삼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떠나갔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다. “창랑 물 맑거들랑 내 갓끈을 씻음세나, 창랑물 흐리거들랑 내 발을 씻음세나” 하는 데 隱者의 선 자리를 완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 따라서 내 자리는 내 자리다.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대로 하시오. 나는 또 나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遂去不

復與言이라 다시 서로 말이 없었다고 했다. 싸우고 갈라진 것 아니다. 서로 이해하고 갈라진 것일 것이다. 싸우고 헤어진 것은 어느 때 가서도 다시 또 시비가 나오고야 만다. 서로서로의 다른 입장을 이해해 주어서야말로 시비의 토론은 없어진다.

자기 억울한 생각에도 마음이 괴롱왔겠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屈原이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나 그 번민에 더욱 괴로왔을 것이다.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확신에 이르렀다. 不復與言이라 한 다음 그는 곧장 돌을 안고 汨羅水로 나갔을 것이다.

남의 깊은 속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다.

예로부터 屈原의 죽음에 대하여는 말이 많다. 그 志操가 높고 맑은 데 대하여는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지만, 세상이 자기의 깨끗한 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聖賢의 道에서 볼 때에 완전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대체의 결론이다. 그래서 역사를 쓰는 班固는 그를 평해서 露才揚己라, 재주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라 했고, 劉勰은 狷狹之志라, 치우치고 좁은 생각이 라, 楊雄은 말하기를 遇不遇命也, 何必沉身哉,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天命인데 반드시 물에 빠져 죽기까지 할 것이야 없지 않으나 했고, 孟東郊도 三黜有愠色 卽非聖賢模라, 세번 쫓아냄을 입어 나무래는 빛이 있었으니 聖賢의 본때라고는 할 수 없다, 했으며, 孫邠은 道廢固命也 何事葬江魚, 皆賊之也, 道가 떨어지는 것은 天命으로 되는 것인데 어찌 自殺을 하여 고기 배에 장사를 지내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도리어 道를 해치는 일이라 했다. 다만

張文潛만이 楚國茫茫盡醉人, 獨醒唯一靈均, 哺糟更使同流俗, 漁父由來亦不仁, 온 楚나라 어디를 바라봐도 다 정신빠진 것들 뿐인데 홀로 하나 靈均(屈原의 字)만이 깨어 있었다. 설사 지꺼기를 먹으며 썩어진 일반 세상 사람과 같이 했단들 그것이 무슨 의미 있느냐 고기잡이 늙은이는 본래 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고 칭찬을 했다.

孔子 孟자의 가르침으로 하면 본래 不怨天 不尤人, 어떤 억울한 不幸 疇박을 당하여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누구 사람을 허물하지도 않는 것이 原理原則이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老子도 和其光 同其塵이라 해서 높은 德이 있을수록 너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했고 莊子도 安時處順이라 해서 겸손하게 당해 오는 運命을 그대로 받는 것이 性命을 온전히 하는 길인 것을 말했다. 그런 理想의 자리에서 보면 자기 한 몸을 물 속에 던져 죽는 것은 완전한 德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제나 평안한 자리에서 教理 理論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觀念에 빠지기가 쉽고 구체적인 事實의 實情은 모르게 된다. 죽는 사람에게는 역시 자기만이 아는 구체적인 實存이 있다. 그것은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列子の 말대로 生者不可不生 死者不可不死지 거기 개인의 意志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물론 죽는 순간에도 제 죽는 것을 알고, 가슴에 돌을 안으려면 안을 수 있고 이제라도 버리려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나 그 생각의 뒤에는 늘 全體의 엄한 명령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正統的인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히틀러 打倒를 계획하다가 死刑을 당하는 본혜퍼의 행동은 비판의 여지가 많을 것이

다. 그러나 實存의 순간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당하는 그 사람만이 아는 곡절 많은 역사의 과정의 쌓이고 쌓인 결과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간을 속이는 명령된 마음이면 몰라도 적어도 참되려 하는 깨어있는 마음에는 그것은 不可避의 것이다. 그러므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말할 자격이 없다. 원리 원칙을 결코 무시해서는 아니되지만 平時에는 힘써 원리 원칙으로 내 마음을 가다듬어도 일단 죽음의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에 닥친 혼을 볼 때는 그를 깊이 同情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屈原이 自問自答한 것을 보면 聖賢의 길을 모른 것이 아니었다. 잘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자기는 汨羅水로 발길이 나갔다.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가령 예수의 경우를 본다면 어떠할까? 그 聖賢파에서 볼 때는 비난의 여지가 없을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十字架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가 天命에 順할 줄 몰라서 죽은 것일까? 그와는 반대 아닌가? 갯세마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합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소서.” 그리고 죽음의 길로 나갔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삶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티끌 밖에서 놀기를 가르치는 莊子도 兩是라는 말을 했다. 是非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物論을 초월할 것을 말하면서도 현실의 인간인 다음에는 또 是非非를 가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兩是다. 是非를 다뤄서는 아니되지만 또 是非를 가리지 않아서는 아니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孟子도 聖에 淸, 任, 和, 時의 구별을 두었다. 물론 갈만한 때면 가고 밋을 만한 때면

밋는 것이 理想이다. 그러므로 孔子에게 時자리를 드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때에 맞게 하는 孔子에 비하면 못한 점이 있으면서도, 伊尹이나 柳下惠나 伯夷를 볼 때 거기 聖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任이요, 淸이요, 和요 하는 설명을 부쳐서 했다. 完全이나 不完全이냐가 문제 아니다. 역사의 물음에 대답을 하느냐 아니 하느냐가 문제다. 또 完全이 이와 저의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에 대하는 혼의 태도에 있다. 그 혼의 눈동자가 절대의 명령이 나오고 있는 그 입을 直視하고 있나 못 있나에 있다. 直視하면서 하는 것이면 예수처럼 참혹한 죽음을 해도 좋고 석가처럼 八十을 살고 평안히 열반을 해도 좋다. 요점은 確信에 있다.

屈原이 完全한 德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아는 것은 두 가지다. 學者 道德家의 토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舉世皆濁, 衆人皆醉라 해서 욕을 했던 民衆은 길이 길이 屈原을 기념하고 그 죽은 날인 5월 5일이면 端午에 쌀을 담아 물 속에 던지고 배를 타고 競渡會를 하여 그 원통한 혼을 위로하려 했다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오늘은 千萬의 學者나 도덕가보다도 하나의 屈原이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것이다. 完全하려는 사람은 없으나 역사에 대답을 하려는 사람은 없다. 살려는 놈, 功獻을 하려는 놈은 많으나 죽음으로라도 항의를 하려는 놈은 없지 않은가? 馬援이 그 子弟들을 경계하면서 伯夷叔齊는 되려다가 못되도 걱정이 없지만 柳下惠는 되려다가 못되면 큰일이라, 해서 차라리 伯夷叔齊를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 해야 할 것이다. 伯夷叔齊는

세상이 권력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 산 속에 숨어 살다가 굶어죽은 사람이요, 柳下惠는 세상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도 어느 것은 내 임금 아닌 것이 있으며 어느 것은 내 백성 아닌 것이 있느냐 하며 治亦進 亂亦進, 세상이 된 세상이어도 나가 벼슬하고 아니 된 세상이어도 나가 벼슬한 사람이다. 둘을 비교하면 伯夷叔齊는 말지만 좁고 변통이 없는 것 같고 柳下惠는 넓고 度量이 크고 세상 건질 생각을 더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둘을 배우려다가 채 배우지 못하고 모방에 그치고 마는 경우에 그 어느 것이 더 해가 크냐 하면 물론 柳下惠 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본받지 말라 한 것이다.

오늘 실속은 없이 거품만이 떠도는 近代化, 福祉國家의 물결을 건너다보면 되다가 채 되지도 못한 자칭 柳下惠 식의 정치가 지도자가 어찌도 그리 많은가? 차라리 屈原이라도 와서 큰 바위를 안고 자기 함께 빠져 그 거품을 단숨에 바다 밑으로 꺼버리는 것을 봤으면 시원하겠다.

옛날에는 隱士가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隱士란 있으려 해도 있을 수 없이 변해버린 全體的인 社會다. 숨을 곳 피할 곳

이 없다. 共同責任이 있을 뿐이다. 性命을 온전히 한다는 말은 옳으나 性命은 이미 個人的인 것이 될 수 없다. 全體救援 없이 個人救援이란 없다. 넓다 좁다 하지만 무엇이 넓은 것이요 무엇이 좁은 것인가? 확신 있으면 죽어도 宇宙 안에 살았고 확신 없으면 東奔西走해도 無意味의 사막에 뒹다다 떨어지는 티끌이다. 그러기 때문에 孔子가 그 고기잡이 늙은이의 노래를 듣고 自取之也니라 했다. 孟子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때 어떤 사람이 “창랑물 맑거들랑 내 갓끈을 씻읍세나, 창랑물 흐리거들랑 내 발을 씻읍세나” 하고 노래하는 것을 듣고 “小子聽之淸斯濯纓濁斯濯足, 自取也,” 애들아 듣거라 맑으면 갓끈 씻고 흐리면 발씻으니 스스로 제가 하는 것이니라 했다는 것이다. 제게 달렸다. 屈原이 제게 달렸다. 제가 뭔가! 옛날에 망망한 바닷가에 오뚝 서서 능히 「내다」 하는 것이 저였지만 이제는 그 바다에 뛰어드는 데 제가 있다. 돌을 안고 물에 뛰어든 屈原은 영원히 民衆 속에 살았다. 외로운 것 같지만 아니다. 죽음으로 도리어 역사에 영원한 참여를 했기 때문이다.

《씨울의 소리》, 1973년 5월호, pp.43-51.

古典풀이

## 漁 父 辭

屈 原  
咸錫憲解說

### 漁父辭

屈原既放，游於江潭，行吟澤畔，顏色憔悴，形容枯槁。  
漁父見而問之曰，子非三閭大夫與，何故至於斯。  
屈原曰，舉世皆濁我獨清，衆人皆醉我獨醒，是以見放。  
漁父曰，聖人不凝滯於物，而能與世推移，舉世皆濁，何不泥其泥而揚其波，衆人皆醉，何不餽其糟而飲其醪，何故深思高舉，自令放爲。  
屈原曰，吾聞之，新沐者必彈冠，新浴者必振衣，安能以身之察察受物之汶汶者乎，寧赴湘流，葬於江魚之腹中，又安能以皓皓之白，而蒙世俗之塵埃者乎。  
漁父莞爾而笑，鼓枻而去，乃歌曰，滄浪之水清兮，可以濯乎纓，滄浪之水濁兮，可以濯乎足，遂去不復與言。

### 고기잡이 늙은이 노래

『굴원이 이미 내침을 반음에 강담에 놀아 못가에 걸으며 울조리나 낮빛이 바짝마르고 모양이 마른 나무처럼 시들었더라.

고기잡이 늙은이 보고 묻기를, 그대 살려대부 아닌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 이르렀는가.

굴원이 가로되, 온 세상이 다 흐렸는데 나 홀로 맑았고, 못사람이 다 취했는데 나 홀로 깨었노라, 이러므로 내침을 보았노라.

고기잡이 늙은이 가로되, 어진이는 무엇에나 영기고 절림이 없어 세상으로 더부러 잘 어울려 옮겨가는 것이다. 온 세상이 다 흐렸거든 어찌하여 그 진흙을 휘저으며 그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고. 못사람이 다 취했거든 어찌하여 그 찌꺼기를 먹으며



漁父辭

그 나뭇물을 마시지 않는고. 그리고는 깊이 생각하고 높이 서서 스스로 내침을 받도록 하는고.

굴원이 가로되, 나는 들으니 새로 머리감은 이는 반드시 감투를 뒹겨서 쓰고 새로 몸 씻은 이는 반드시 옷을 떨어져 입는다 하니, 어찌 내 몸의 깨끗함을 가지고 남의 얼룩덜룩 한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소상강에 나가 고기 뱃속에 장사를 지낼지언정 또 어찌 참아 희고도 흰 맑음을 가지고 더러운 세상의 티끌을 부릅쓸 수 있겠는가.

고기잡이 늙은이 빙긋이 웃고 뱃살을 쳐 떠나가면서 노래하기를, 창랑물 맑거들랑 내 갓끈을 씻음세나, 창랑물 흐리거들랑 내 발을 씻음세나,

드디어 가 버린 다음 서로 다시 말이 없더라.』

屈原=楚나라 懷王 때 사람, 왕족으로서 屈이라는 고을을 맡아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姓을 삼게 됐다. 이름은 平, 原은 그 字다. 지식이 넓었고 정치에 밝았으며 마음이 곧고 글을 잘했다. 처음에 王의 신임을 얻어 안팎의 정사를 다 맡아했으나 王이 上官大夫의 쓸아먹는 말에 넘어가 原을 밀타함에 슬프고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 돌을 안고 汨羅水에 빠져 죽었다. 이 글은 자기의 그 심경을 그린 것이다.

漁父=漁는 고기 잡이, 父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쓴다. 이 세상 富貴 功名에 뜻이 없고 道를 닦아 숨어 사는 隱者, 巢父 許由 같은 사람들.

屈原이 여기 漁父를 끌어낸 것은 아마 실지 그런 隱者와 문답을 했다가 보다는 자기 心中을 밝히기 위해 그렇게 말을 만들어 한 것일 것이다.

辭=글 쓰는 체의 한가지. 賦, 解, 說, 序, 記.....여러가지가 있는 그중의 하나, 上古에 詩가 있었고 그것이 변해 騷가 됐고, 騷 다음에 辭가 나왔

다. 간략하고도 깊이가 있는 체라고 한다.

放=내쫓음. 여기는 被動으로 내쫓음을 받았다는 뜻.

游=마음 아파서 헤매어 왔다갔다 함.

江潭=글자 대로는 강, 못, 그러나 여기 강담은 地名이라고 한다. 王의 눈밖에 난 다음 原은 江潭 屈潭에 가 있었다.

行吟=가며 가며 읊조려 흥얼거림.

憔悴=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없고 쪼쪼해진다. 타마름.

枯槁=마른 나무 처럼 시들어 活氣가 없다. 모든 일에 뜻이 없어진 증거.

三閭大夫=屈原이 하던 벼슬 이름. 閭는 등리 들어가는 어귀의 문. 그것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지위가 표시된다.

斯=여기 이곳에

舉世=은 세상, 은 "나라가" 할 때는 舉國, "은 민족이" 할 때는 舉族的으로.

凝滯=凝은 물이 얼듯 엉켜 버리는 것 滯는 걸리는 것. 먹은 것이 체했다는 때의 체.

## 漁父辭

사람의 생각 행동은 물 처럼 流通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엇이 걸리고 막혀버리면 안된다. 분란 일이 있어도 분을 낸 다음에 슬쩍 이기고 넘어가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온통 거기 잡혀버려 平安을 잃는다. 마음이 平安치 못하면 事物을 바로보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가 없다. 推移= 옮겨 감. 환경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잘 적응해 감.

灑=진장을 두루 밟아 물을 흐림.

揚=물결을 쳐 일으킴.

糟=술을 거르고 난 찌꺼기

醜=꽃 술을 걸러내고 찌꺼기 속에 아직도 좀 남은 연한 술, 나름 물

深思=나라 일을 위해 곰곰 생각함.

高舉=특별히 남다르게 높이 자기 지조를 지킴.

自畀=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만듦.

彈冠=머리를 감고 나면 깨끗한 기분에 자연히 먼지 낀 감투를 그냥 쓰고 싶지 않아 손가락으로 툭툭 빗겨서 쓴다.

振衣=옷을 활활 털어 그 속에 낀 먼지를 버림.

察察=찰은 무엇을 자세히 살핌. 거기서 깨끗이 라는 뜻이 나온다. 水至清則無魚 人至察則無徒,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 없고, 사람이 너무 깔끔히 할런 벗이 없다 하는 때의 察도 같은 뜻.

汶汶=더러운 것이 묻은 것. 얼룩이 간 것.

受物=사람은 자유해야 한다. 物은 나

의 밖에서 오는 모든 것.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는 마음의 자유가 없다.

湘流=瀟湘江, 洞庭湖로 들어가는 강 이름. 경치가 좋아 中國문학에 많이 나오나 특히 舜의 王后 娥皇, 女英의 전설로 유명하다. 舜이 죽은 후에 그 슬픔을 琵琶에 부쳐 노래하고 瀟湘에 빠져 죽었다. 그 피 눈물을 대밭에 뿌려 아롱아롱한 斑竹이 났다고 하고 흔히 水神이 났다해서 湘君이라 湘妃라 한다. 春香傳에 나온 것도 그 높은 志操 때문이다. 湘流를 혹은 常流라 써서 長流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屈原의 心境으로 미루어 보아 瀟湘江일 것이다.

世俗=더러운 세상

塵埃=티끌. 그 더러운 세상 사람의 마음을 말한 것.

蒙=머리에 뒤어 씌. 풀이 흙을 들치고 나오는 것을 표시한 것. 그래서 어리다는 뜻도 되고 머리에 쓴다는 뜻도 있다.

莞爾=빙긋이 웃는 형용.

鼓枻=枻는 뱃대, 혹은 노, 鼓槌는 뱃삼을 툭툭 치며 노래를 부른단 말.

滄浪=漢水의 下流. 두 물이 합류하기 때문에 滄浪이란다고 했고 거기 섬이 생겨서 滄浪洲라 부르는데, 거기 漁父亭이 있고 또 屈原이 갓끈을 썼었다는 濯纓臺도 있다.

纓=갓의 끈

잘막한 글이지만 그 안에 품고 깨끗한 忠誠을 다해서 나라를 생각

源父辭

하던 屈原이 어떻게 해서 스스로 죽기를 결심하기에 이르는지 그 心 變의 과정이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고는 말지 않을 정도로 잘 그려져 나타나 있다. 진정에서 나온 글이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潔白을 주장한다.

맨 처음은 형편 없이 참혹해진 자기 모양의 의식이다. 여기서 그 슬픔이 절정에 오른다. 아픈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강가를 헤매 오르 내리며 입속에 흥얼거리려 싸다니다가 피곤에 지쳐 언덕에 주저앉아 물속에 비치는 자기 꼴을 보니, “아 내 꼬락서니가 이렇게 됐구나,” 할 지경으로 달라졌다.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 보며 한 생각일 것이다. 顏色憔悴形容枯槁라고 했다. 바짝 마르고 시들어 빛이 없다.

그것은 나라와 임금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어떻게 지극하고 그 생각 속에 어떻게 욕심과 그릇된 판단이 없었던 것을 말해주는 일이다. 사랑이 지극하지 않았던들, 그리고 그 사랑에 무슨 지저분한 목적이라도 끼었던들, 그 사랑을 바쳤던 마음이 변해 자기를 몰라보아 줄 때,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이 없는 거짓말로 자기를 풀은 것인데 그이가 어찌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 억울할수록 아픔은 더 크다.

그러나 그러는 마음에도 모든 시비 칭찬 욕을 초월해 살아야 한다는 이론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 스스로 그러한 숨어사는 성자가 되어 자기에게 물어본다. 내가 나라에서 들찌도 아니게 임금의 신임을 받았던 三閭大夫 아닌가. 그 내가 이런 사람도 없는 강가를 왜 와서 헤매지, 하고 다시 한번 냉정한 객관적인 태도로 묻는다. 그것이 들찌 단이다.

셋째 단은 자기 불행의 원인을 분명히 말해서 자기의 깨끗을 밝히는 말이다. 擧자와 獨자가 강하게 대립이 된다. 온 세상이 다 흐렸고 모든 사람이 다 취했다. 스스로 돌아보아 자기의 터럭 끝만큼도 더러운 것 없음을 말한다. 온 세상과 자기 하나의 수로는 비길 수 없는 차이지만, 자기는 결코 비겁하게 부귀나 안전을 위해 타협을 하거나 모른척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악에 굴복할 마음은 없다.

이러므로 내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에 대한 반격이 있다. 불행하지만 그 불행의 책임은 내게 있지 않다. 저 어리석은 세상에 있다. 임금이 어두워서 당하는 억울인데 거기 온 세상을 끌어낸 것은 전체군주의시대이기는 하지만 세상이 정말 옳은 세상이요 똑똑한 눈을 가진 사람이 몇이라도

있다면 그래 이런 더럽고 악독한 일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있던 말이냐 하는 생각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그 다음은 거기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말이다.

我獨淸이란 말이 스스로 너무 모가 난 말이다. 세상이 아무리 흐렸더라도 썩상을 내버리고 어딜 가느냐, 세상을 전적으로 부인하고는 나도 없지 않으나, 그 잘못된 것을 알아 거기 물이 들지 않으면 서도 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진이의 일 아니냐 하고 지금까지의 자기 태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한번 隱者의 길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흐리면서도 흐리지 않는 것이 강물이듯이, 휘하면서도 휘하지 않는 것이 정말 세상을 전쳐 가는 성자의 일 아니냐 하고 생각해 본다.

집착을 해서는 못쓰지 않느냐. 물이 모든 것을 옮겨 바다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얼어버리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느냐, 천지만물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道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느 무엇에 걸려버리면 어찌 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내 뜻을 고집함 없이 슬쩍 받아 돌리는 데서야 크신 하늘 뜻을 성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나라를 나 혼자서

하는 듯이 생각하고 나만을 너무 옳다해서 구별하는 것이 잘못 아니냐, 그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패망을 가져올 뿐 아니냐고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지 않지만 屈原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못이 없는 자기의 일을 가지고 아무 밝힘도 없이 명청하고 있으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시인해 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 같아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들으니 하고 다시 자기 본래 태도에 돌아온다. 그것이 다섯째 단이다. 나는 들으니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결코 자기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객관적인 권위가 신다는 뜻이다.

이론 보다도 생명의 근본 바탕이 그렇지 않느냐, 必자는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놓았다. 누구만이 아니라 사람인 담에는 다 생각을 해가지고가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한단 말이다. 그 근본을 우리 천성에 구한 것이다. 새로 복욕한 사람은 반드시 모자를 털어서 쓰고 옷을 흔들어서 입는다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근본이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차라리 죽더라도 깨끗한 편을 지키겠다.

## 漁父辭

하고 결심을 새로히 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지막 단에 고기잡이 늪은 이가 빙긋이 웃었다는 것은 屈原이 이성과 감정을 다해 생각할대로 하고 반성할대로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얻은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뱃살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떠나갔다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다. “창랑 물 맑거들랑 내 갓끈을 씻음세나, 창랑물 흐리거들랑 내 발을 씻음세나”하는 데 隱者의 선 자리를 완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 따라서 내 자리는 내 자리다.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대로 하시오. 나는 또 나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遂去不復與言이라 다시 서로 말이 없었다고 했다. 싸우고 갈라진 것 아니다. 서로 이해하고 갈라진 것일 것이다. 싸우고 헤어진 것은 어느 때 가서도 다시 또 시비가 나오고야 만다. 서로 서로의 다른 입장을 이해해 주어서야말로 시비의 토론은 없어진다.

자기 억울한 생각에도 마음이 괴로웠겠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屈原이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나 그 번민에 더욱 괴로웠을 것이다.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확신에 이르렀다. 不復與言이라 한 다음 그는 곧장 들을 안고 汨羅水로 나갔

을 것이다.

남의 깊은 속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다.

예로부터 屈原의 죽음에 대하여는 말이 많다. 그 志操가 높고 맑은데 대하여는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지만, 세상이 자기의 깨끗한 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聖賢의 道에서 볼 때에 완전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대체의 결론이다. 그래서 역사를 쓰는 班固는 그를 평해서 露才揚己라, 재주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라 했고, 劉勰은 狷狹之志라, 치우치고 좁은 생각이라, 楊雄은 말하기를 遇不遇命也, 何必沉身哉, 때를 만나고 못만나는 것은 天命인데 반드시 물에 빠져 죽기까지 할 것이야 없지 않느냐 했고, 孟東郊도 三黜有愠色 即非聖賢模라, 세번 쫓아냄을 입어 나무래는 빛이 있었으나 聖賢의 본래라고는 할 수 없다. 했으며, 孫郃는 道廢固命也 何事葬江魚, 皆賊之也, 道가 떨어지는 것은 天命으로 되는 것인데 어찌自殺을 하여 고기 배에 장사를 지내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도리어 道를 해치는 일이라 했다. 다만 張文潛만이 楚國茫茫盡醉人, 獨醒唯

## 漁父辭

有一靈均，哺糟更使同流俗，漁父由來亦不仁，은 楚나라 어디를 바라봐도 다 정신 빠진 것들 뿐인데 홀로 하나 靈均(屈原의 字)만이 깨어 있었다. 설사 지겨기를 먹으며 썩어진 일반 세상 사람과 같이 했단들 그것이 무슨 의미 있느냐 고기잡이 늙은이를 본래 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고 칭찬을 했다.

孔子 孟子的 가르침으로 하면 본래 不怨天 不尤人, 어떤 억울한 不幸 讒박을 당하여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누구 사람을 허물하지도 않는 것이 原理原則이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老子도 和其光 同其塵이라 해서 높은 德이 있을수록 너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했고 莊子도 安時處順이라 해서 겸손하게 당해 오는 運命을 그대로 받는 것이 性命을 온전히 하는 길인 것을 말했다. 그런 理想의 자리에서 보면 자기 한 몸을 물 속에 던져 죽는 것은 완전한 德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제나 평안한 자리에서 教理, 理論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觀念에 빠지기가 쉽고 구체적인 事實의 實情은 모르게 된다. 죽는 사람에게는 역시 자기만이 아는 구체적인 實存이 있다. 그것은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列子の 말대로 生者不可不生 死者不可不死지 거기 개인의 意志가 들어

갈 여지가 없다. 물론 죽는 순간에도 체 죽는 것을 알고, 가슴에 돌을 안으려면 안을 수 있고 이제라도 버리려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나 그 생각의 뒤에는 늘 全體의 엄한 명령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正統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허틀러 打倒를 계획하다가 死刑을 당하는 본혜퍼의 행동은 비판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實存의 순간은 잡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당하는 그 사람만이 아는 폭절 많은 역사의 과정의 쌓이고 쌓인 결과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간을 속이는 망령된 마음이면 몰라도 적어도 참되려 하는 깨어있는 마음에는 그것은 不可避의 것이다. 그러므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말할 자격이 없다. 원리 원칙을 결코 무시해서는 아니되지만 平時에는 힘써 원리 원칙으로 내 마음을 가다듬어도 일단 죽음의 물음에 대답을 해야하는 순간에 닥친 혼을 볼 때는 그를 깊이 同情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屈原이 自問自答한 것을 보면 聖賢의 길을 모른 것이 아니었다. 잘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자기는 汨羅水로 발길이 나갔다.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가령 예수의 경우를 본다면 어떠할까? 그 聖賢파에서 볼 때는 비난

## 漁父辭

의 여지가 없을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十字架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예수가 天命에 順할줄몰라서 죽은 것일까? 그와는 반대 아닌가? 겐세마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합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소서. “그리고 죽음의 길로 나갔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삶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티끌 밖에 놀기를 가르치는 莊子도 兩是라는 말을 했다. 是非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物論을 초월할 것을 말하면서도 현실의 인간인 다음에는 또 是是非非를 가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兩是다. 是非를 다뤄서는 아니되지만 또 是非를 가리지 않아서는 아니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孟子도 聖에 淸, 任, 和, 時의 구별을 두었다. 물론 갈만한 때면 가고 밋을만한 때면 밋는 것이 理想이다. 그러므로 孔子에게 時자를 드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때에 맞게하는 孔子에 비하면 못한 점이 있으면서도, 伊尹이나 柳下惠나 伯夷를 볼 때 거기 聖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任이요, 淸이요, 和요 하는 설명을 부쳐서 했다. 完全이나 不完全이냐가 문제 아니다.

역사의 물음에 대답을 하느냐 아니 하느냐가 문제다. 또 完全이 아와 저의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에 대하는 혼의 태도에 있다. 그 혼의 눈동자가 절대의 명령이 나오고 있는 그 입을 直視하고 있나 못있나에 있다. 直視하면서 하는 것이면 예수처럼 참혹한 죽음을 해도 종교 석가처럼 八十을 살고 평안히 열탄을 해도 좋다. 요점은 確信에 있다.

屈原이 完全한 德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아는 것은 두 가지다. 學者 道德家의 토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舉世皆濁, 衆人皆醉라 해서 욕을 했던 그 民衆은 길이 길이 屈原을 기념하고 그 죽은 날인 5월 5일이면 참대통에 쌀을 담아 물 속에 던지고 배를 타고 競渡會를 하여 그 원통한 혼을 위로하려 했다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오늘은 千萬의 學者나 도덕가 보다는 하나의 屈原이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것이다. 完수하려는 사람은 없지 않으나 역사에 대답을 하려는 사람은 없다. 살려는 놈, 功勳을 하려는 놈은 많으나 죽음으로라도 항의를 하려는 놈은 없지 않은가? 馬援이 그 子弟들을 경계하면서 伯夷叔齊는 되려다가 못되도 걱정이 없지만 柳下惠는 되려다가 못되면 큰일이라, 해

## 漁父辭

서 차라리 伯夷叔齊를 본받기를 권  
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 해야 할 것  
이다. 伯夷叔齊는 세상이 권력주의  
로 기우러지는 것을 보고 제 마음  
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 산 속에 숨  
어 살다가 굶어죽은 사람이요. 柳  
下惠는 세상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  
도 어느 것은 내 임금 아닌 것이  
있으며 어느 것은 내 백성 아닌 것  
이 있느냐하여 治亦進 亂亦進, 세  
상이 된 세상이어도 나가 벼슬하고  
아니된 세상이어도 나가 벼슬한 사  
람이다. 둘을 비교하면 伯夷叔齊는  
맑지만 좁고 변통이 없는 것 같고  
柳下惠는 넓고 度量이 크고 세상  
건설 생각을 더하는 것 같다. 그러  
나 그 둘을 배우려다가 채 배우지  
못하고 모방에 크치고 마는 경우에  
그 어느 것이 더 해가 크나하면 물  
론 柳下惠 편이다. 그러므로 그것  
은 본받지 말라한 것이다.

오늘 실속은 없이 거품만이 떠도  
는 近代化, 福祉國家의 물결을 건  
너다보면 되다가 채 되지도 못한  
자칭 柳下惠식의 정치가 지도자가  
더찌도 그리 많은가? 차라리 屈原  
이라도 와서 큰 바위를 안고 자기  
함께 빠져 그 거품을 단숨에 바다  
밑으로 꺼버리는 것을 봤으면 시원  
하겠다.

옛날에는 隱士가 있을 수 있었지  
만 오늘은 隱士란 있으려 해도 있

을 수 없이 변해버린 全體의인 社  
會다. 숨을 곳 피할 곳이 없다. 共  
同責任이 있을 뿐이다. 性命은 온  
전히 한다는 말은 옳으나 性命은  
이미 個人的인 것이 될 수 없다.  
全體救援없이 個人救援이란 없다.  
넓다 좁다 하지만 무엇이 넓은 것  
이요 무엇이 좁은 것인가? 확신  
있으면 죽어도 宇宙 안에 살았고  
확신 없으면 東奔西走해도 無意味  
의 사막에 뒀다가 떨어지는 티끌이  
다. 그러기 때문에 孔子가 그 고  
기잡이 늙은이의 노래를 듣고 自取  
之也니라 했다. 孟子에 나오는 말인  
데 어떤 때 어떤 사람이 “창랑물 맑  
거들랑 내 갓끈을 씻읍세나, 창랑  
물 흐리거들랑 내 발을 씻읍세나”  
하고 노래하는 것을 듣고 “小子聽之  
淸斯濯纓濁斯濯足, 自取也,” 애들아  
듣거라 맑으면 갓끈 씻고 흐리면  
발씻으니 스스로 제가 하는 것이  
니라 했다는 것이다. 제게 달렸다.  
屈原이 제게 달렸다. 제가 뭐가!  
옛날에 망망한 바닷가에 오륙서서  
능히 「내다」하는 것이 저였지만 이  
제는 그 바다에 뛰어드는 데 제가  
있다. 돌을 안고 물에 뛰어든 屈原  
은 영원히 民衆 속에 살았다. 외로  
운 것 같지만 아니다. 죽음으로도  
리어 역사에 영원한 참여를 했기  
때문이다.



楚辭補註卷第七 汲古閣本 三原李錫齡校刊 校書郎臣王逸上

## 漁父章句第七 離騷

- 1 漁父者屈原之所作也屈原放逐在江湘之間憂愁歎吟儀容變易而漁父避世隱  
 2 身釣魚江濱欣然自樂時遇屈原川澤之域怪而問之遂相應答楚人思念屈原因敘其  
 3 辭以相傳焉<sup>1</sup>  
 4 屈原既放<sup>2</sup>游於江潭<sup>3</sup>行吟澤畔<sup>4</sup>顏色憔悴<sup>5</sup>形容枯槁<sup>6</sup>  
 5 漁父見而問之<sup>7</sup>曰子非三閭大夫與<sup>8</sup>何故至於斯<sup>9</sup>  
 6 屈原曰舉世皆濁<sup>10</sup>我獨清<sup>11</sup>衆人皆醉<sup>12</sup>我獨醒<sup>13</sup>是以見放<sup>14</sup>

<sup>1</sup> 卜居漁父皆假設問答以寄意耳而太史公屈原傳劉向新序嵇康高士傳或採楚辭莊子漁父之言以爲實錄非也

<sup>2</sup> 身斥逐也

<sup>3</sup> 戲水側也

<sup>4</sup> 履荊棘也

<sup>5</sup> 奸黷黑也補曰奸古旱切黷力遲切

<sup>6</sup> 癯瘦瘠也補曰槁音考

<sup>7</sup> 怪屈原也

<sup>8</sup> 謂其故官史記作歟

<sup>9</sup> 曷爲遭此患也史記云何故而至此

<sup>10</sup> 衆貪鄙也一作世人皆濁史記作舉世混濁而我獨清衆人皆醉而我獨醒

<sup>11</sup> 志潔已也

<sup>12</sup> 惑財賄也一云巧佞曲也

<sup>13</sup> 廉自守也

<sup>14</sup> 棄草野也一本此句未有爾字

1-3 漁父者屈原之所作也屈原放逐在江湘之間憂愁歎吟儀容變易而漁父避世隱身釣魚江濱欣然自樂時遇屈原川澤之域怪而問之遂相應答楚人思念屈原因敘其辭以相傳焉] 어보라는 작품은 굴원이 지은 것이다. 굴원은 쫓겨나 강상 사이에 있었는데 근심과 수심, 한탄과 탄식으로 용모가 변하였다. 그런데 어보는 세상을 피해 몸을 숨기고 강과 물가에 낚시를 드리우고 혼연히 혼자 즐기고 있던 차에 굴원을 강과 호수 부근에서 만났다. 이상하게 여겨 그에게 묻고 그 물음에 응답하여 초나라 사람의 생각을 주고받았는데 굴원이 그 말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전해지게 된 것이다. 4 屈原既放] 굴원이 이미 쫓겨나서 4 游於江潭] 강과 호수에서 노닐며 4 行吟澤畔] 연못 가에서 다니며 읊는데 4 顏色憔悴] 안색이 초췌하고 4 形容枯槁] 그 모습이 말라 있더라. 5 漁父見而問之] 어보가 보고 그에게 물어 5 曰子非三閭大夫與] 가로되, 그대는 삼려대부가 아닌가? 5 何故至於斯] 무슨 까닭으로 이 지경이 되었는가? 6 屈原曰舉世皆濁] 굴원이 말하기를, 모든 세상이 모두 혼탁한데 6 我獨清] 나 혼자 고결하고 6 衆人皆醉] 모두가 다 취했는데 6 我獨醒] 나 홀로 깨어 있다. 6 是以見放] 그래서 쫓겨났노라.

7 漁父曰<sup>15</sup>聖人不凝滯於物<sup>16</sup>而能與世推移<sup>17</sup>世人皆濁<sup>18</sup>何不滌其泥<sup>19</sup>而揚其  
 8 波<sup>20</sup>衆人皆醉<sup>21</sup>何不舖其糟<sup>22</sup>而歎其醜<sup>23</sup>何故深思高舉<sup>24</sup>自令放爲<sup>25</sup>  
 9 屈原曰吾聞之<sup>26</sup>新沐者必彈冠<sup>27</sup>新浴者必振衣<sup>28</sup>安能以身之察察<sup>29</sup>受物之汶  
 10 汶者乎<sup>30</sup>寧赴湘流<sup>31</sup>葬於江魚之腹中<sup>32</sup>安能以皓皓之白<sup>33</sup>而蒙世俗之塵埃乎<sup>34</sup>  
 11 漁父莞爾而笑<sup>35</sup>鼓枻而去<sup>36</sup>歌曰<sup>37</sup>

<sup>15</sup>隱士言也

<sup>16</sup>不困辱其身也史記云夫聖人者一本物上有萬字

<sup>17</sup>隨俗方圓

<sup>18</sup>人貪婪也一作舉世皆濁史記云舉世混濁

<sup>19</sup>同其風也史記作隨其流補曰漏古沒切又乎沒切濁也

<sup>20</sup>與沈浮也五臣云漏泥揚波稍隨其流也

<sup>21</sup>巧佞曲也

<sup>22</sup>從其俗也補曰舖布乎切

<sup>23</sup>食其祿也文選醜作醜五臣云舖糟歎醜微同其事也舖食也歎飲也糟醜皆酒滓補曰醜力支切以水齋糟也醜薄酒也

<sup>24</sup>獨行忠直五臣云心思謂憂君與民也

<sup>25</sup>遠在他域史記云何故懷瑾握瑜而自令見放爲

<sup>26</sup>受聖人之制也

<sup>27</sup>拂土塗也補曰荀子云新浴者振其衣新沐者彈其冠人之情也其誰能以己之焦焦受人之拭拭者哉

<sup>28</sup>去塵穢也

<sup>29</sup>已清潔也五臣云察察潔白也史記云又誰能以身之察察

<sup>30</sup>蒙垢塵也補曰汶音門汶濛沾辱也一音昏荀子注引此作惛惛惛惛不明也惛門昏二音

<sup>31</sup>自沈淵也史記作常流常音長

<sup>32</sup>身消爛也一無之字史記云而葬乎江魚腹中耳

<sup>33</sup>皓皓猶皎皎也皓一作皎五臣云皓白喻貞潔

<sup>34</sup>被點汙也一無而字塵埃史記作溫蠖說者曰溫蠖猶惛憤也

<sup>35</sup>笑離斷也莞一作莞爾補曰莞爾微笑胡板切

<sup>36</sup>叩船舷也枻一作棹補曰枻音曳舷船邊也

<sup>37</sup>一本歌上有乃字

7 漁父曰] 어보가 말하기를, 7 聖人不凝滯於物] 성인은 외물에 그 몸을 욱보이지 않으며 7 而能與世推移] 또한 세상의 추이와 함께할 수 있다. 7 世人皆濁] 세상 사람이 모두 혼탁하다면 7 何不滌其泥] 어찌하여 그 진흙을 흐트러서 7-8 而揚其波] 그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가? 8 衆人皆醉] 많은 사람이 모두 취했다면 8 何不舖其糟] 어찌하여 그 술지게미를 먹고 8 而歎其醜] 찌꺼기 술이라도 마시지 않는가? 8 何故深思高舉] 어찌하여 고고하게 생각하고 높게 거하여 8 自令放爲] 스스로 쫓겨나게 만드는가? 9 屈原曰吾聞之] 굴원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바로는 9 新沐者必彈冠] 새로 머리감은 사람은 반드시 관을 털고 9 新浴者必振衣] 새로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튄다. 9 安能以身之察察] 어찌 나의 깨끗함으로 9-10 受物之汶汶者乎] 외물의 더러움을 묻힐 수 있겠는가? 10 寧赴湘流] 차라리 상류에 나아가 10 葬於江魚之腹中] 죽어 강의 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라도 10 安能以皓皓之白] 어찌 희다 흰 것으로 10 而蒙世俗之塵埃乎]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쓸 수 있겠는가? 11 漁父莞爾而笑] 어보가 슬며시 웃고는 11 鼓枻而去] 노를 두드리며 가면서 11 歌曰] 노래하였다. 이르기를,

- 12 滄浪之水清兮<sup>38</sup>可以濯吾纓<sup>39</sup>滄浪之水濁兮<sup>40</sup>可以濯吾足<sup>41</sup>  
 13 遂去不復與言<sup>42</sup>

## 楚辭補註卷第七 終

<sup>38</sup>喻世昭明補曰浪音郎禹貢嶧冢導滌東流爲漢又東爲滄浪之水注云滌水至武都爲漢至江夏謂之夏水又東爲滄浪之水在荊州孟軻云有孺子歌曰滄浪之水清兮可以濯我纓滄浪之水濁兮可以濯我足清斯濯纓濁斯濯足矣自取之也水經云武當縣西北漢水中有洲名滄浪洲地說曰水出荊山東南流爲滄浪之水是近楚都故漁父歌云云余案尚書禹貢言導滌水東流爲漢又東爲滄浪之水不言過而言爲者明非他水蓋漢沔水自下有滄浪通稱耳漁父歌之不達水地宜以尚書爲正

<sup>39</sup>沐浴升朝廷也吾一作我五臣云清喻明時可以修飾冠纓而仕也

<sup>40</sup>喻世昏闇

<sup>41</sup>宜隱遁也吾一作我五臣云濁喻亂世可以抗足遠去

<sup>42</sup>合道眞也補曰藝文志云屈原賦二十五篇然則自騷經至漁父皆賦也後之作者苟得其一體可以名家矣而梁蕭統作文選自騷經下居漁父之外九歌去其五九章去其八然司馬相如大人賦率用遠游之語史記屈原傳獨載懷沙之賦揚雄作伴牢愁亦旁惜誦至懷沙統所去取未必當也自漢以來靡麗之賦勸百而諷一無復惻隱古詩之義故子雲有曲終奏雅之譏而統乃以屈子與後世辭人同口而論其識如此則其文可知矣

12 滄浪之水清兮] 창랑의 물이 맑은지라 12 可以濯吾纓] 갓끈을 씻을 만하고 12 滄浪之水濁兮] 창랑의 물이 흐린지라 12 可以濯吾足] 발을 씻을 만하구나 13 遂去不復與言] 나아가 더 말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표기법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원본의 표기법을 그대로 보이도록 하였다. 다만 띄어쓰기는 몇 군데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해서 융통성있게 하였다.

부록으로 두 가지를 보였는데 하나는 《씨올의 소리》 영인본이다. 의도하지 않은 오타가 아니라면 수정한 글자는 단 한 자 두 곳으로 서, 隱土라고 되어 있는 것을 隱土로 고친 것뿐이다.

다른 하나는 예전에 내가 작성한 것으로 《초사보주》의 〈漁父〉 부분을 원문비평적 방법으로 만든 문서를 그대로 실었다.

함석헌 선생이 사용한 원문이 궁금하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부록으로 실은 급고각본 《초사보주》인데 이것과 비교해볼 때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1) 포기조철기리의 '리'가 釃가 아니라 釃로 되어 있다. (《문선》이 그리한다 하였음.)
- 2) 안능이호호지백 부분에 '又'자가 추가되어 있다.
- 3) 고예이거 '乃'가왈 부분에 乃자가 추가되어 있다.
- 4) 가이탁오영 가이탁오죽에서 '오'가 '乎'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1, 2, 3은 《초사보주》의 협주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이지만 乎자 문제는 내가 이렇게 된 판본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데서 이렇게 표기하는지 궁금하다. 《고문진보》에서도 좀인데 다른 판본에서는 我로 한 것도 많다고 한다.

40년 전의 글을 읽어보는 느낌이 새롭다. 분명 예전에 읽었을 글이건만. 중간중간 재미난 표현도 있다. 응체의 체가 체했을 때의 체라든지. :-)